

알 수 없는 일본, 코로나 대처 능력 형편없다

옴 오피니언 | 승인 2020.02.12 11:57

크루즈선 확진자 점점 늘어나는데 속수무책...어떻게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옴오피니언 칼럼] 일본은 선진국임을 자처한다. G2의 자리를 중국에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강국임은 맞다. 의료 수준 역시 최고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대응하는 것을 보면 형편 없다. 우왕좌왕, 갈팡질팡이 딱 맞는 말이다. 어떻게 손을 못쓰는 것 같다. 특히 크루즈선에서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아베에게도 돌아올 듯 하다.

코로나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39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확인됐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요코하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에 대한 신종코로나 추가 검사에서 39명이 양성반응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의 감염자 수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74명이 됐다. 가토 후생상은 또 승선자와는 별도로 검역관 1명도 감염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도록 일본 정부가 한 것은 없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발표만 한다. 대책은 없다. 확진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배에 탄 승객들은 얼마나 공포감에 떨겠는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승객들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다. 일본 정부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다. 그냥 죽으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크루즈선에 남아 있는 3600명이 모두 감염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일주일동안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람은 3700여 명 가운데 겨우 439명이다. 일반 병원이나 민간연구소에 위탁하면 금방 끝날 검사를 정부연구소에서만 하고 있는 까닭이다. 보건 당국도 우왕좌왕 한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크루즈선 추가 감염자 수를 66명이라고 밝혔다가 2시간 만에 65명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부 연구소 검사를 고집하고 있는 건 인재입니다.” 한 전문가의 멘트다. 후진국에서도 이처럼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확진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으로 불뚝이 튕까봐 그러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아베의 대처 능력도 도마에 오를 것 같다. 확진자가 이처럼 늘 것은 정부 탓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승객들을 내리게 한 뒤 격리수용했어야 옳다. 크루즈선에 가두는 것은 야만적 행위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폭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폭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폭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폭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폭연